

고은 불교대학 소설



65

도 머리가 멍해져서 그 정체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가기도 한다.
아무튼 악귀의 짓거리일 것이다. 4백리 남게 가서 트카라의 폐허에 이르렀다. 이 나라는 사람 하나 없이 된지 오래이고 자 짓거리하는 황량하게 버려진 채였다.
여기서 동으로 6백리 남게 가서 사르바나 폐허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날의 차말국(且末國)의 땅. 성이나 저자는 오래 위에 솟아있으나 안연(人煙)은 끊어져버렸다. 여기서 동쪽으로 1천리 남게 가서 나바라의 폐허에 이르렀다. 옛날의 누란이었다.

여기서 현장의 출구와 귀국의 고향을 담은 기행(紀行)의 본분은 끝난다.
나야 연대려 별천을 아울러 로브노르강 남쪽기슭에 이르는 서역남도(西域南道)의 여러 오아시스가 지난날의 흔적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사막 속의 무인지경으로 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막으로만 되어있는 누란의 폐허 가까이 내려진 만화는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어떤 짐승이 낫선 곳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서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로 합시다. 나는 만화라고 합니다" **"합두라고 불러도 되고..."**
이 시막에서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모르는 시 한 수가 떠올랐다. 그 시를 증명하려는 일로 그의 열릴 줄 모르는 입이 열린 셈이었다.

본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누가 쌓은 돌일까
형편없는 내 솜씨를 내보여
수미산의 모습을 설명하지만
그런 줄 모른다면
부질없이 크기를 잘 쉰인가
(元來精成 是處巖石 難我施工 難辨形跡 如若未曉 徒勞寸尺)

이것은 단나라 현사사비(玄沙師碑)의 시인데 그는 항상 "지금 이 몸에 전라가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말해보라. 이 병어리아"하고 봉사 귀머거리 병어리 세가지 병을 제도할 것을 지양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선사(禪師)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조화를 실현하여 어떤 비약 따위로 복여내는 실봉(雪峰)을 사사함으로써 그 스승에 의해서 비(사비) 두터(壽陀)라고 불리었다.
도무지 다른 선승들은 한철을 지내면 어디론가 떠나기 실상인데 그 현사사비는 전

아니 어떤 환상(幻像)과도 같은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이 그동안 잊혀 있다가 틀어올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스투파에의 바친 예배를 마친 눈으로 그 스투파 아래 바위덩어리와도 같은 언덕을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합두가 서 있었다. 그 합두도 무욕도의 아름다운 나승(尼勝) 합두 이상으로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거기에서 대기

터 써온 낮은 말처럼.
다섯가 쏘아올린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공중을 구르고 있다.
두 사람은 그런 소리 따위에 주의하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머슴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만화의 합장한 두 손이 내려졌다.
그러고 보니 합두는 바람이 불면 몸매가



사막의 시간

새의 날개죽자에 절묘하게 얽혀진 채 땅바닥에 내려온 만화는 그 어젯죽자에서 내려지자마자 거칠게 구물려야 하였다. 땅바닥은 수척 모래바닥이었다.
새는 그 입창백 눈으로 한번 만화를 돌아다보았다. 눈여겨보니 새의 머리 위에는 어떤 장식 같은 빨간 술이 달려있었다. 그것은 꽤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이윽고 새의 커다란 두 날개가 커리어며 모래먼지를 일으켰다. 어느새 새는 공중으로 떠올라 하늘 저쪽을 향하고 있었다. 필경 오랜 곳으로 가는 길이라면 나야 나야 성(尼城) 쪽의 사막으로 향하는 것인가.
누란에서 얼마나 까마득한지 모르는 나야는 현장의 '대답서여기'에서 현장이 몇 백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당나라로 돌아오는 관찰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그려져 있다.

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통한 확인을 되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몇번이고 사방을 돌아다 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
라고 이미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 입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입안의 모래 밟알도 빨아냈다.
그의 사이에 들어온 것은 누란의 굵은 점토질의 흙덩어리로 된 꼭대기에 남겨진

새를 타고 날아 온 만화는 마침내 누란의 불탑 앞에서 합두를 만났다

이곳-나야성-에서 동쪽으로 가면 대유사(大遊沙)에 들어간다. 모래는 드넓게 펼쳐져서 바람에 따라 날아가다 불려 흩어지다가 한다. 사람이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지 않고 결국에는 미로(迷路) 부성이기 되고 만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저 공막할 뿐이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좋을 것인가를 알 길이 없다.
그 때문에 모랫길에는 해골을 모아놓은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수초(水草)란 거의 없으며 뜨거운 바람이 많다. 그 바람이 불면 사람도 짐승도 이상하게 되어 발병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노래소리를 내거나 어느 때는 영영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뚜렷이 보려하거나 들으려해

스투파였다.
그 정체가 사막에서 울려다보면 누군가가 일생을 다해서 만든 인조(人造)의 작은 산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거기에 아무런 기교도 파시할 줄 모르는 오랜 무언의 스투파가 마치 탑의 상륜부(相輪部)처럼 공중에 두드러지고 있었다.
만화는 그것을 들어지게 쳐다보더니 그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지난날 조선왕 사해의 한 섬에서 익힌 예배방식은 인도나 티벳쪽의 오해부지(五體投地)의 예배와 약간 달랐다. 아무튼 만화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릎을 꿇고 모래바닥에 놓인 그의 두 손바닥과 함께 이마를 대는 관습을 하였다.
한동안 그대로 동작을 멈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듯이 그의 허반신이 무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투파 꼭대기의 허공에 대고 한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다.

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처박히 있기에 하다못해 실봉이 "그대는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 대답이 있었다.
"초조(初祖-달마)도 동토(東土)에 오지 않았고 이조(二祖-혜가)도 서천(西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디로 갈 까닭이 없는 무르익은 경지가 드러난 대답이었다. 바로 그 비두타가 읊조린 것들이 훨씬 뒤 본격적으로 모여져 전해오다가 조선땅에 남아있는 것을 명나라 말기가 중국땅에서 엮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어찌어찌하여 무욕도 만화에게까지 들은 공명이 되었다가 그의 천상계를 마친 이래의 첫 환생(還生)에서 기억해낸 것이었다. 시 한편이 이렇게도 온갖 인연을 따라 환생의 민들레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영동한 곳에서 꽃을 피워올리는 것처럼 방금 도착한 누란의 만화에게 들어진 것이다.
영동해라고 하지만 어찌 영동한 것 뿐이겠는가. 실로 그 시를 읊조린 사람에게 하

나의 기구한 필연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만화의 전생-경력으로 보아 이 시가 내보이고 있는 무서운 정적과 경界的 놀라운 것이었다. 이미 그 시는 지난 날의 한 선재(善才) 오달(惠達)한 정진으로 표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수행으로 나아갈 한 사람의 세계에 자리잡아 그가 지은 시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편의 시도 중생의 세세생생과 똑같이 죽었다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을 연면(連綿)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시도 노래도 춤도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만화가 얼마나 다른 만화로 변하였는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과연 만화의 이목구비가 전생 무욕도의 그때와는 달리 아주 빼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천상세계에서 산 흔적이거나 그 천상세계를 떠날 때의 극한적인 고통을 받은 나머지 흔적에 의한 아름다움인지도 모른다.
그런 만화가 머리를 들었다. 사막의 막막한 환경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느낄 만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누군가를 대기하며 며칠째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서 있는 동안 모래의 폭풍도 그 부근까지 와서 잠들었고 대낮의 폭염이나 밤의 추위로 그를 둘러싸고 약해졌다. 마치 그가 대기할 때까지 그럴 것처럼.
바로 그런 합두의 서 있는 모습이 만화의 시야 한복판에 들어왔다. 만화가 그쪽을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영롱한 말이 합두의 입에서 나왔다.
만화는 그저 고개를 약간 숙여 정중히 첫 인사를 하였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말에 익숙해져서 누란의 옛 사어(死語)로 말하고 있었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말의 장벽이 전혀 없어진 경지이므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의 말로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

다 나타날 것 같은 얽은 너울 못 위에 아주 거친 무명꽃을 걸치고 있었다.
"이름과 모양이 허깨비인 진리 앞에서 당신과 내가 따로 부를 이름이 없었으나 이런 사막에서 만났으므로 서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로 합시다. 나는 만화라고 합니다."
"나는 전생다생 이래 따라다니는 이름이 몇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이름이 합두였습니다. 합두라고 불러주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막에서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기야 내가 천상에서 내려다본 사바세계의 어느 땅에서는 이 세상의 색(色)이 갖가지이지만 딱 두개의 색깔 이름 밖에 없이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만이 아니라 많은 색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합두도 그렇겠습니까?"
"만화님!"
"합두님!"

그림·조항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9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감사진

■ 교 과 목 :

1학년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도	1학기	의식이론	대승2강설	불교미술	천태론	유식철학
3학년도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대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